

과도기적 융합 (融合) 형에 대한 재고

—통시적 관점에서의 접근—

金 希 京

Abstract

In this paper, it is going to be analyzed out the data with the diachronic change, specially focused on instances of the fused form and amalgam.

This paper is offered on the belief that it makes the examination of the fused form and amalgam more interesting with the investigating of evidences in the medical to premodern language. The diachronic study of these changes in this article is not only for the found of diverse forms but also for the features in syntactic or morphological limitations. The rationale of this study is that comparison of the fused form and amalgam is necessary for taking an objective view of diachronic change of Korean Language. As such, it deserves to be an issue of middle linguistics research which has been increasing our understanding of diverse materials in language and literature area for many decades.

Key words: the fused form, amalgam, diachronic changes, the transitional period

본고는 융합형에 대한 통시적 재고를 최종 목표로 먼저 음운 형태론에서 화합과의 분류 기준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중세국어의 실현 양상을 바탕으로 근대 이후로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여 비교 고찰하였다. 국어사적 관점에서 개괄된 기존 논의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점을 되짚어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근대국어의 융합형에 주목하였다. 본고에서는 간접 인용구문을 중심으로 한 구문에서 융합형의 형성과정에 주목하였다. 먼저 ‘ㅎ-’의 기능을 분석하고 역사적 변화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융합형에 대한 분명한 자질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실례를 중심으로 ‘-답니다, -다오, -다네, -단다’와 ‘-다니, -다고, -다면서’의 실현양상에 주목하였다. 융합형 종결어미는 ‘-다 ㅎ-’의 원형에서 ‘ㅎ-’의 축약을 경험하면서 어미 ‘-다’와 인접 어미의 통합을 통해 형성하게 된다. 그 결과 내포문의 표지가 1인칭인 경우 융합의 형성이 비교적 활발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들어가며

화합은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형태 또는 형태소가 만나서 음절이 축약되는 것을 말한다.¹

1 김영옥(1995:52)에서는 공식적인 생성과정에서 형태소의 화합을 설정하고 그 예로 ‘더+오→다’를 제시하고 있다. 고영근(1980) 참조.

음운론적인 형태 변화와 더불어 역사적으로 문법 기능이 변화한 것을 통틀어 화합이라고 논의되어 왔다.

한편 융합은 형태적 변화를 겪거나 형태, 의미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하나의 형태소로 굳어진 언어 형식을 말하는데, 형태의 재구조화를 통해 의미 기능이 변화하여 융합형을 형성하게 된다.

위의 두 개념은 피상적으로 유사해 보이며 형성과정과 의미 기능면에서 구분하기가 힘든 것 같다. 그런 이유로 한국어학에서도 융합과 화합의 용어는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정확한 분별 기준을 제시한 논의도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영어 이론에서 차용된 용어들이기 때문에 언어 현실에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부정하기 힘들다. 본고는 융합과 화합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되짚어보고 두 용어에 대한 분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융합에 대한 논의 중 대표적으로 Bybee(1985)를 들 수 있는데, 이 논의에서는 융합(fusion)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융합은 의미 표현이 하나의 어휘로 표현되었을 때 그 정도가 가장 강한 반면, 통사 구조에서는 약해진다고 하였다.² 즉, 융합(fusion)을 이룬 형태는 어휘, 굴절, 통사적 구성 사이에 있으면서 어떤 어휘 요소에도 종속되지 않는 자립 문법 형태소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Matthews(1974), Dressler(1985), Spencer(1991) 등의 논의에서도 이와 유사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Matthews(1974)에서는 연성 현상(Sandhi form)의³ 극단적인 유형으로 융합(fusion)을 설정하면서 두 연속되는 모음이나 자음의 연결 과정에서 한 음소의 완전한 탈락으로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융합으로 보았다.

Matthews(1974)는 연성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융합(fusion)을 사용한 반면, Spencer(1991)는 인 구어와 같은 굴절어의 패러다임(paradigm)을 기술할 때 융합을 제시하고 있다. Spencer(1991)와 동일한 관점을 보이고 있는 Dressler(1985)에서 굴절적인 특성을 가진 언어일수록 융합이 더 잘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교착어에는 형태 배열의 투명성 때문에 융합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Dressler(1985)와 Spencer(1991)는 굴절어의 고유한 특징으로 융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융합에 대한 국내의 논의를 살펴보면, 최현배(1937, 1982:688)와 현대국어의 이지양(1993), 이필영(1993)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먼저 최현배(1982:688)에서는 “둘 이 나 둘 더 되는 씨가 서로 겹쳐져 아주 녹아 어울려서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한 덩어리의 새 뜻을 나타내는 겹씨”로 융합을 정의하면서 복합어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희승(1955:252)에서는 “결합의 도가 긴밀하여 이것을 분리시키면 각 성분 중에는 벌써 독립된 단어가 될 수 없

2 Bybee(1985:12)에서 Free Grammatical Morphemes으로 clitics, particles, auxiliaries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융합의 정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These expression types form a continuum that ranges from the most highly fused means of expression, lexical expression, to the most loosely joined means of expression, syntactic or periphrastic expression : lexical-derivational-inflectional-free grammatical-syntactic greater degree of fusion.

3 Matthews(1974:113)에서 연결형들에서의 음운현상으로 연성현상(Sandhi form)을 정의하면서 이것을 internal sandhi(내적 연성)와 external sandhi(외적 연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어에서는 형태적 융합과 통사적 융합 즉, 단어 내부에서 일어나느냐 단어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일어나느냐 하는 구분과 유사한 방식의 분류이다.

는 경지에까지 이른 것”으로 융합을 보고 있다. 그 예로 ‘소나무, 부삽, 바느질, 싸전’ 등의 예를 들면서 이런 형태는 결합의 도가 긴밀해져서 융착유합(融着癒合) 되면 복합어로 변한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승재(1992)에서는 융합을 “기원적으로 여러 형태가 배열되는 문법적 구성으로, 언어의 통시적 변화에 따라 하나의 덩어리로 굳어져 더 이상 공시적 분석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⁴ 안명철(1991:726)에서는 “통사적, 의미적으로 긴밀한 환경에서 두 단어 이상이 줄어 한 단어로 됨과 동시에 문법적, 의미적 기능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융합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⁵ 안명철(1992)에서 인용 구문을 대상으로 융합형을 원래의 인용 구문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여 전자를 환원적 융합형으로, 후자를 비환원적 융합형으로 분류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런 분류는 후행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융합의 진전에 따라 통사, 의미적인 변화를 주시한 것은 탁월한 인식으로 평가된다. 이희자(1997:36)에서는 “단일어가 줄어드는 형식을 준말로 정의하고 연결형에서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융합을 준말과 대조하여 파악하고 있다. 한편 융합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로 평가받는 이지양(1993:30)에서는 융합을 “연결형에서 완전한 단어에 음절수 줄이기가 일어나 의존요소로 재구조화 되는 현상”이라 정의한 바 있다.⁶

송철의(1993:29)에서는 “둘 이상의 형태소가 배열된 문법적 구성이 하나의 덩어리로 굳어져 더 이상 공시적 분석이 불가능해진 것 중, 그 의미나 기능이 변화된 것”을 융합형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화합에 대한 논의도 다양한 편인데 먼저 국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고영근(1978:30)에 주목해보자. 한국어 형태소의 어근 분석 및 기술에 대해 논의하면서 amalgame에 대한 번역 용어로 화합을 소개한 바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김영옥(1995:98)에서는 형태통사론적인 관점의 화합을 논의하면서 두 개 이상의 형태가 합쳐지더라도 개별적인 형태의 고유한 기능이 살아있는 융합이나 결합 또는 음운론적 화합 등과 형태통사론적 화합은 다르다고 설명하였다.⁷ 이 논의에서는 두 개 이상의 형태가 하나의 형태로 합쳐지면서 개별적인 형태의 고유한 기능은 사라지고 새로 생긴 형태에 대해 새로운 기능이 생기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결합이나 합류, 통합, 축약, 공형태 등의 유사 용어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어느 개념에 대한 논의도 상호 확연한 구분과 분류 기준에 대한 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여전이 의문은 남는다.

본고에서는 화합형을 인접 요소의 형태 변화로 음절수가 줄어드는 형태적 구성으로 이런 재구조화된 형태적 구성이 새로운 의미와 파생적 기능을 겸비하면서 새로운 어휘 패러다임을 만들게

4 대표적인 예로 ‘*-ㅅ#궁+에’의 구성을 가졌던 것이 ‘-께’로 굳어져 더 이상 공시적 분석이 불가능하고, ‘*-이/의#궁+에’가 ‘-에게’로 변하는 것도 같은 현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췌다’가 ‘췌여 있다’로부터 형성된 것으로 융합 현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승재(1992)에서는 융합을 접사나 어미의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생성에 관여한다고 보는 것이다.

5 이 논의에서는 ‘-곶개, -런다, -고프다, -단다’ 등에 대해 분석하면서 융합형이 원형과 다른 문법적, 의미적 특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6 이지양(1985)에서는 ‘-래도(-라고 해도)’의 구성이 형태적으로 특이하다고 하면서 융합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것이 문법체계 안에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한다. 한편 융합의 조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으며 연구 대상을 ‘래도’에 한정시켜 논의하고 있다.

7 형태통사론적인 화합을 $a+b>c$ 융합, 결합, 음운론적 화합을 $a+b\rightarrow ab$ 로 공식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때, abc 는 문법 기능을, $>$ 는 통시적 변화를, \rightarrow 는 공시적 변이를 각각 의미한다.

되는데 이것을 융합형이라고 보고자 한다.

II 범주 논의

융합형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몇 가지 풀지 못한 과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주변 용어들과의 구분에 대해 고영근(1981:35)에서는 결합, 통합, 공형태, 축약 중 먼저 타동사, 자동사, 형용사에서 통합의 예를 다음 (1a-f)와 같이 제시하였다.

- (1)(a) 便安호물 득과라(월석 14, 77b)
- (b) 오늘사스시 언과라(월석 7, 9a)
- (c) 減度에 시러 니를와라(법화 2, 23a)
- (d) 우리 ᄒ마 得호미 ㄷ외와라(법화 2, 251a)
- (e) 우리는 차반도 비브르과이다(초노하 33b)
- (f) 내 이제 흰히 즐겁과라(법화 2, 137b)

위 (1a-b)는 ‘-거/어-’와 선어말어미 ‘-오-’의 통합으로 실현된 타동사 통합 ‘-과라’의 예이다. (1c-d)는 자동사 통합의 예이며, (1e-f)는 형용사 통합의 예로 볼 수 있다. 한편, 김영옥(1995:99)에서는 공형태와 축약의 예를 화합과 구분해서 다음 (2a-d)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2)(a) 소년 珍重ᄒᆞᆫ ㅅᆞᆫ 받고져 칸마른(두언 22, 19)
- (b) 나도 ㅅᆞ 僧餐과 慧可를 스승ᄒᆞ간마른(두언 16, 1)
- (c) 내 毗奈耶에 묻져 願 ㄹᆞᆫ초미 이쇼니라(능엄경 7, 23)
- (d) 내 이제 모물 ㄹᆞ리니 願ᄒᆞᆫ 各各 隆喜ᄒᆞ고라(월석 11, 6)

위 (2a-b)는 동일 문헌에 출현한 예로 전자는 후자 ‘ᄒᆞ간마른’의 축약 형태로 볼 수 있다. 이것을 통해 축약을 공식적인 현상으로 화합을 통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축약은 문법 기능면에서 아무런 변화 없이 음운론적인 변화를 겪은 형태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2c)는 선어말어미 ‘-니-’의 기능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공형태로 (2d)는 ‘-고-’와 ‘-라-’의 화합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니-’는 1인칭 주어 구문에서는 실현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서법 기능도 없이 실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d)는 선어말어미 ‘-고-’와 명령형어미 ‘-라-’가 합쳐서 15세기 ᄒ고라체의 새로운 기능을 얻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3a-e)를 통해 합류가설에 대한 논의를 되짚어보기로 한다.

- (3)(a) 是如ㅣㄴᆞᆫ 是如ㅅᆞ 汝ㅅㅅᆞᆫ 所ㅅ 如ㅣㅅᆞᆫ 眞義ㅣ 得ᆞ
設ㅅㅅᆞᆫ(구인 11, 22-23)

- (b) 大師子吼し ッナト(구인 11, 21-22)
- (c) 因縁し 問白 欲ムニトウヲ入しッ(구인 3, 17-18)
- (d) 無リノヲ入し 見トヲハハ(구인 15, 3)
- (e) 佛し 勸ッ白ロトウハハニ(구인 11, 13)

위 (3a)의 예는 15세기 ‘-느-’에 대응하는 문법 형태로 『구역인왕경 11』에서 실현된 ‘設トヲハハ’이다. 화자가 사실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설명형 어미가 나타나 있어 직설법으로 볼 수 있다. (3b-d)는 동작동사의 어간 見, 問, 吼 등에 결합하는 ‘ト’의 예이며, (3e)의 ‘ㄷ’는 [-완료]로 각각 볼 수 있고 이것은 중세국어의 직설법 어미 ‘-느-’에 가깝다. 즉 ‘ㄷ’가 ‘ト’에 합류되어 15세기 ‘-느-’를 형성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다.⁸

그렇다면 현대국어에서 융합형의 대표적인 예를 통해 융합의 특성 및 기능에 주목해보기로 하자. 후술하게 될 중세나 근대에 비해 상당히 많은 양의 용례가 실현되나 여기서는 ‘-답니다, -다오, -다네, -단다’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 (4a-f)에서 찾아볼 수 있다.

- (4)(a) 이번 중간시험에 일등했답니다
- (b) 직접 가보겠어요
- (c) 난 평생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 (d) 이번 일은 자네만 믿는다네
- (e) 자네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셨다네
- (f) 어제서야 전화를 받았단다

(4)는 현대국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답니다, -다오, -다네, -단다’의 종결형어미로, (4a)에는 ‘-답니다’를, (4b-c)에는 ‘-다오’, (4d-e)에는 ‘-다네’, (4f)에는 ‘-단다’의 예를 확인할 수 있다.

본고는 위의 네 유형 가운데 ‘-단다’를 중심으로 융합형 종결어미의 의미 기능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융합형 어미 ‘-단다’는 엄밀히 말해서 ‘-다 한다’의 원형으로 회복할 수 없는데 그것은 원형과 융합형의 의미 기능의 차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융합형 어미가 어떤 의미 기능을 가지는지 다음에 살펴보자. 원형인 ‘-다 한다’는 내포문의 ‘-다’와 모문의 ‘하다’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형태인데, 이 때 형식동사 ‘하-’는 별다른 의미 기능이 없기 때문에 통시적으로 음운변화를 겪게 된다. 그렇다면 ‘-다 한다’에서 ‘하-’를 제외한 다른 구성 요소들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면 융합형과 원형의 의미 기능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융합형 종결어미 ‘-단다’의 형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단다’는 선행 명제의 사실성에 대한 화자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다-’와 이것을 확인, 강조하는 ‘-니’, 그리고 종결어미 ‘-다’로 이루어

8 ‘ㄷ’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논의는 백두현(1997:48-54)를 참조할 수 있다.

어진다. 다시 말하면 ‘-다 한다’는 명제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진 ‘-다’와 그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 ‘-ㄴ’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 한다’는 ‘-단다’라는 융합형 어미를 형성하면서 하나의 특유한 의미 기능을 하게 된다. ‘-답니다, -다오, -다네’도 ‘-단다’와 마찬가지로 원형의 종결어미가 가지고 있던 “객관성”에 “기정 사실성, 명제의 사실성 강조, 확인”의 기능을 첨가하면서 융합을 형성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융합형 종결어미의 의미 기능을 종합하면 화자의 주관적 믿음을 강조하는 확인 강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형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와 기능은 융합형을 이루면서 얻게 되는 변화로 화합형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들은 융합소를 가진 형태로 보고 향후 과도기적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 기능을 획득 여부에 따라 융합형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의 실현 양상에 대해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III 실현 양상

지금까지 경계 범주의 논의를 통해 융합형의 개념 정립 및 실례를 분석했다. 이번 장에서는 통시적인 변화를 겪은 융합형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먼저 화합의 대표적인 형태 ‘-고라’가 고대와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러 소멸되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김영옥(1995)에서는 ‘-고라’가 화합을 통해 굳어졌다고 보고 있다. 다음 (5a-b)가 그 문중이라고 할 수 있다.

- (5)(a) 廻以是衆生 共向一切知 ㄹㅅ (범망경 46)
 (b) 願聞是法者 疾得成佛道 ㄹㅅ (범망경 46)

위 (5a-b)는 고려시대 구결자료 ‘ㄹㅅ’은 ‘-고라’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전기 중세국어에 ‘고+라’ 고라’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예이다. 후기중세국어의 문헌에는 ‘-고라’의 형태가 비교적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예를 다음 (6a-c)에서 살펴볼 수 있다.

- (6)(a) 부텃기 받즈바 生生에 내 願을 일티 아니케 ㅎ고라(월석 1, 13)
 (b) 도타 文殊師利여 네 大悲로 니르고라(월석 9, 9)
 (c) 그되 날 위하야 대해 용왕의 솔보디 염부제入 파라내왕入 선우 태자]
 보스불라 았타 ㅎ고라(월석 22, 44)

고대국어에 청원의 선어말 어미 ‘-고-’와 명령형 어미 ‘-라’는 역사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문법 형태를 이룬 것으로 본다. 따라서 (6a-c)의 ‘-고라’는 공시적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화합형태로 볼 수 있다.

9 안병희(1987:1070)에서는 ‘古’를 청원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이승재(1991:454)에서는 선어말어미 ‘-거-’와 연관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실례 : 道 修良 侍是古女(祭亡妹歌))

다음 (7a-c)에서 ‘-고려’가 나타나는 15세기와 16세기의 문증을 확인해볼 수 있다.

- (7)(a) 의원형하 네 이 도훈 법을 날드려 ㄱ르치고려(박통사 상, 13)
- (b) 주신하 다룬 뒤 드는 작도 흥나 비러 오고려(노걸대 상, 19)
- (c) 내 아기 위하야 어더 보고려(석상 6, 13)

위의 (7a-b)는 ‘-고라’가 완전한 하나의 형태로 굳어진 이후에 등장한 16세기의 국어자료의 예들이다. (7c)는 ‘-고라’의 형태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15세기의 예로 이것은 화합시기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귀중한 문증이다.(김영옥(1995:115-6)) 다음 (8a-b)에서 17세기에 나타난 ‘-고라’의 예를 확인할 수 있다.

- (8)(a) 내 보매는 아므려도 의심 업스니 분별 말고라(선조 내간)
- (b) 싹씨들 만히 히여 다고(무덤편지 57)

먼저 (8a)는 홍운표(1993)에서 제시한 예로 ‘-고라’의 빈번한 실현을 확인할 수 있는 16세기와는 달리 몇 안 되는 17세기의 예 가운데 하나이다. (8b)는 ‘-고라’에서 어미 ‘-라’의 탈락을 추정할 수 있는 형태로 문법 기능은 ‘-고라’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8a)의 예는 17세기 전반의 것이나 그 이후로 ‘-고라’를 문증하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근대국어에 있어서 ‘-고라’의 화합형이란 다른 형태로의 대치 또는 ‘-고라’의 소멸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음 (9a-c)에서 그 대치형을 살펴보자.

- (9)(a) 즈로 사름 브려 아라셔 이리 알외소 얼혀니 마소(편지 4, 송강)
- (b) 나도 닉일 나죄나 모리 가리커니아 그리 아라츠티소(무덤편지 1)
- (c) 게 겹서를 듣보아 호오(편지 6, 송강)

위의 (9a-c)에서 ‘-소/오’는 17세기 이후에도 매우 생산적으로 사용된 어미로 화자와 청자의 높임 등급이 동일한 경우 사용될 수 있는 ‘-고라’와 동일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대국어의 선어말어미 ‘-고-’와 어말어미 ‘-라’는 화합의 단계를 거쳐 15-17세기 초까지 실현되다가 근대국어에 들어 소멸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i. 과도기적 형태의 의미 기능

고대 및 중세국어에는 근대국어에 비하여 융합형 어미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기는 아니지만, ‘-다 하-’구문의 여러 유형들이 융합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서 인용구문의 구조가 근대화는 근본적으로 달랐음을 지적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먼저 ‘-다 하-’를 원형으로

하는 인용구문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인용”¹⁰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로 이번 장을 시작하고자 한다. 국어사적으로 중세와 근대국어에는 직접, 간접화법의 구별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¹¹ 중세국어의 직접화법, 간접화법의 모습은 근대국어에 와서 일부 변화를 경험하는데, 공손법 등급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직접화법에서 엄격하게 지켜진 공손 등급은 간접화법에 와서 그렇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세국어에 간접으로 인용된 말은 동명사나 조사 ‘ㅅ’로 표현되었지만¹², 근대국어 말기에 인용표지 ‘-고’가 등장하면서 인용문은 또 다른 양상을 띄게 된다.

인용문에 대한 논의에서 국어사적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국어 문헌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의적인 실현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통시적인 논의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대국어의 인용 표현도 ‘-고’의 등장으로 인해 다른 양상을 띄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인용문의 또 다른 특징으로 중세와 근대국어 어순의 차이에서 오는 통사적 기능의 구별이 있다. 근대국어에는 “피인용문 + 인용동사”의 어순이 일반적이었으나 후기 중세국어에서는 “인용동사 + 피인용문”의 순서로 실현되는 것이 보통이었다.¹³ 이런 근본적인 어순의 차이는 중세와 근대국어의 인용구문이 별개의 모습을 띠 수밖에 없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런 차이점을 유의하면서 고대국어 및 중세국어의 융합형 어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¹⁴

융합을 이루기 전의 ‘-다 하-’의 인용구문은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특성을 기반으

10 Jespersen(1924) 이래로 인용의 개념은 거의 통용되어 왔다. 국어에 인용의 개념을 강인선(1975), 신선경(1986)에서 동일한 범주로 정의하고 있다. 신선경(1986:95)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화자의 생각을 전달하는 문장 형식으로 인용문을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인용문은 피인용문이 발화되는 일차적 발화상황과 인용문 자체가 발화되는 이차적 발화상황을 전제로 하는 이중적 담화구조를 지닌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필영(1993:12)에서는 인용이 언어형식을 표현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한편 권재일(1999)은 인용동사가 전달하려는 피인용문을 완형보문 형식으로 안고 있는 구문이 인용문이며, 이것의 통사적 특성이 우선시된다고 하였다. 최현배(1937), 남기심(1973)에서는 발화만을 인용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생각은 제외하고 있다.

11 논의의 편의를 위해 중세국어의 ‘ㅎ-’구성을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 제 1유형 S [V - S’]

△ 제 2유형 S [V - S’ - ㅎ다]

⊕ 제 3유형 S [S’ - V]

제 1유형과 2유형이 인용문의 구성에서 빈번히 쓰이고 있으며 현대국어에는 3유형이 흔히 사용된다. 근대국어에서는 1유형이 주로 나타나지만 2유형으로도 나타난다. 그런데 보문소가 처음 나타나는 유형은 3유형도 가능하지만 2유형이 대부분이다. 중세국어의 접속문 구성은 현대국어에 와서 보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보문소가 실현된다. 제 1유형의 접속문 구성에서 형식동사 ‘ㅎ-’는 제 2유형으로 변화하고 생략이 잘 되는 ‘ㅎ-’는 ‘-고’를 간접인용 보문소로 실현시키는 것이다.

12 속격조사 ‘ㅅ’는 격조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서 중세국어 말기부터 ‘ㄴ’로 변화된다. 인용형 연결어미 ‘-단, -란’은 다음 (가-나)에서처럼 실현되기에 이른다.

(가) 길혜 주그리 만단 말 듯고(東新孝 1, 13)

(나) 학교(學校)란 거손(번소 9, 16)

13 근대국어의 인용동사가 피인용문에 후치하는 구조는 외형적으로 내포문의 구조와 유사한 것이다.

14 박경현(1993)에서는 중세국어의 종결형을 “ㅎ라체, ㅎ야썌체, ㅎ쇼셔체” 등으로 구분하고 이 중 ㅎ야썌체와 ㅎ쇼셔체가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를 따로 분리해낼 수 없는 융합형이라고 하였다. 존대의 ‘-시-’가 ‘-아썌/어썌’와 ‘-쇼셔’에 융합되어 이루어진 형태라는 것이다.

로 하고 있다. 이것을 배경으로 융합형 종결어미와 융합형 연결어미가 고대 및 중세국어에 어떤 가능성을 내포하여 근대국어 융합형 어미의 기반을 닦게 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고대국어의 인용구문에서 ‘-다 하-’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간접 인용의 형태를 다음 (10a-b)에 제시한다.

- (10)(a) 나는 가느다 말스도 몬다 니르고 가느닛고(祭亡妹歌)
 (b) 엇그지 왔딘 도적 아니 멀리 갓다 흥뒤(雇工歌 42)

위의 (10a)는 제망매가의 한 구절로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하고...’의 의미를 가진 고대국어 간접 인용의 대표적인 예이다. (10b)는 형태적으로 ‘-다 흥-’의 구문을 취하고 있으며 이런 예는 중세국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세국어에는 아무런 표지 없이 두 문장이 직접 이어지는 경우와 ‘-다 흥-’로 연결되는 경우로 구별된다. 그 중 일반적으로 전자가 많이 나타나지만, ‘-다 흥-’가 나타나는 다음 (11a-e)의 예를 통해 중세국어의 간접인용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1)(a) 엇데 諸佛世尊이 다몬 흥 큰 잃 인연으로 世間에 나시느다 흥거노
 (석상 13, 48)
 (b) 올치 셋재 거슬 쏘 엇엇다 면면 편편 쏘솔 다시 촛줄 것 없다
 흥고 (Grammiare Cor'enne 부록, 93)
 (c) 賢聖 중님 내의 布施흥노이다 흥고 나라해 出令흥니라(석상 24, 13)
 (d) 당그들며 서방마조물 婚姻흥다 흥느니라(석상 6, 16)
 (e) 端正흥고 性이 도하 嗔心을 아니홀씨 일후를 忍辱이라 흥시니라(월석 21, 213)

앞서 살펴봤듯이 후기 중세국어에서는 “인용동사 + 피인용문”의 순서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 하-’의 구조를 갖는 형태는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11)의 예에서 이런 간접 인용구문의 예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때 모문의 어간 ‘흥-’는 형식동사이며¹⁵ 통사 구조를 맞추기 위해 문장을 내포하는 문법적 기능을 한다. 그러면 ‘-다 흥-’가 간접 인용구문을 이루는데 있어 ‘흥-’의 기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융합의 형성에 대한 기본 전제로 중세국어의 ‘흥-’의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세국어 인용구문의 중요한 특성인 ‘흥-’의 통사적 변화에 대한 것은 결국 융합형 어미의 형성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래서 본고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흥-’의 국어사적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전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본용언과 보조용언일 때 ‘흥-’의 활용을 검토하면서 중세국어에서 ‘흥-’의 변화 양상을 주목하도록 하자. 주지하다시피, 어간 ‘흥-’는 본용언일 때보다는 보조용언일 때 형태적인 변화가 두드러진 편이다.

15 이현희(1986)에서는 ‘흥-’가 형식적인 존재이거나 보조적인 존재밖에 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 예문 (12a-d)를 중심으로 보조용언 ‘ㅎ-’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12)(a) ㄴ죽게 코져 ㅎ나(금강삼가 5, 1)
- (b) 다 올터 묻도다(능엄 3, 41)
- (c) 大乘을 비웃디 아니ㅎ야(월석 8, 50)
- (d) 스몏디 묻게 ㅎ며(능엄 6, 56)

(12b)에서는 형식동사의 ‘ㅎ-’는 /Ø/로 실현되고 있으나 다른 예들은 /ㅎ/의 음가를 반영하여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법적으로 기능 부담량이 적은 ‘ㅎ-’는 음가가 생략되기도 하고 그대로 반영되기도 하는 형식동사이다.

한편, ‘ㅎ-’는 다음 (13)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유기음화 하여 실현된다. 일반적으로 후행자음이 /ㄱ, ㄷ, ㅅ/일 때 유기음화 [+aspirated]의 자질을 보이는데, 다음 (13a-c)의 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도록 한다.

- (13)(a) 외다 터시니(용가 107)
- (b) 두쇼셔 커늘(용가 107)
- (c) 올타 커니와(월석 23, 53)

위 (13a-c)은 어간 모음이 탈락하면서 /ㅎ/가 후행자음과 유기음화하여 나타난 형태이다. 이런 음운 현상은 /ㄱ, ㄷ, ㅂ, ㅅ/가 어간 ‘ㅎ-’의 모음 탈락 후에 /ㅎ/와 결합하는 것인데, 한국어의 용언 어간에 /ㅂ/로 시작되는 어미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ㅂ/는 제외된다.¹⁶ 현대국어에서는 ‘결단코, 단연코’ 등과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중세국어에서 ‘ㅎ-’의 활용에서 또 다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어간 ‘ㅎ-’가 부동사형 어미 ‘-아/어’와 함께 결합하여 ‘ㅎ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¹⁷

다음 (14a-e)의 예에서 ‘ㅎ-’의 다양한 양상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 (14)(a) ㄴ춇맨 뉘어뇨 ㅎ야 疑心호리니(몽산 22)
- (b) 내 그제 ㅅ암 오느다 ㅎ야 부르다가(월석 14, 79)
- (c) 진실 아닌가 ㅎ야 네 疑心ㅎ고(능엄 2, 38)
- (d) 비록 올ㅎ야도 올타 아니ㅎ야(내훈 3, 34)

16 이광호(1985)에서는 현대국어의 ‘NP+하다’의 구성에서 NP가 타동사 ‘하-’의 목적어가 될 수 없는 경우 유기음화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또한 동사 ‘하-’가 상태(Static)를 나타내는 명사를 동사화하는 동사화소로 작용할 때에 유기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7 안병희(1959, 1962)에서는 ‘ㅎ-’의 활용 양상을 단순어간일 때와 복합어간일 때로 나누어 보았다. 우선 전자에서 자음 앞에서 ‘ㅎ-’로 ‘-오-’ 앞에서 ‘ㅎ-’으로 실현되고 ‘-아, -오-’앞에서는 ‘ㅎ-’로 유성음과 /ㄱ, ㄷ/의 어미 사이에서는 ‘ㅎ-’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후자는 유성음과 /ㄱ, ㄷ, ㅅ, ㅂ/의 어미 사이에서 ‘ㅎ-’로 실현되고 그 외 환경에서는 ‘ㅎ-’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단 이들의 교체를 수의적이라고 하였다.

(c) 그 德이 상네 조하야(월석 14, 51)

위 (14a-e)에서는 어간 ‘ㅎ-’와 부동사어미 ‘-아/어’가 결합하여 이중모음 ‘j’가 삽입된 ‘ㅎ야’의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¹⁸ 후기 중세국어의 이런 예들은 어간 ‘ㅎ-’의 음운적 특성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일반적인 모음 연결규칙에 따라 ‘하-’로 나타나면 중세국어의 ‘하(多)-’와 의미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현상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동사 ‘하-+ -아’에 ‘j’를 삽입시켜 ‘ㅎ야’로 실현되는 것이다.¹⁹

중세국어 ‘ㅎ-’가 현대국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다음 (15a-d)를 통해 후기 중세국어와 근현대국어의 과도기적 형태 변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5)(a) 몫ᄃᆞᆫ 내완논 𪎐 우미 파라ᄃᆞ다(두해 초 6, 51)

(b) 먼 두들게 𪎐 물에 허여ᄃᆞ고 니슨 뵈해 나죄 비취엿는 히븍ᄃᆞ다

(두해 초 16, 33)

(c) 마보논 므리니 비치 불가ᄃᆞ라코 같기에 구스리 빼엿거든(월석 1, 27)

(d) 마손 𪎐굽차ᄃᆞᆫ 터ᄃᆞᆫ 비치 𪎐라불가ᄃᆞ샤미 공작이 모기 𪎐ᄃᆞ시며(월석 2, 58)

위 (15a-d)는 15세기에 ‘ㅎ-’를 가진 어간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국어사적으로 ‘ㅎ’의 탈락을 경험한 ‘ㅎ-’는 현대국어에 오면서 ‘ㅎ-’만이 어간말음에 남게 된다. 중세국어에서 ‘파라ᄃᆞ-, 허여ᄃᆞ-’ 등 색채를 나타내는 형용사 어간에 일어나며 이런 현상은 근대국어에도 일부 이어진다.²⁰ 결국 현대국어에는 ‘파랗다, 하얗다’ 등의 색채를 나타내는 표현에 일반화되었고 ‘자그맣-, 둥그렇-’ 등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국어사적으로 ‘ㅎ-’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일반적으로 ‘ㅎ-’에서 ‘ㅎ’가 탈락해 어간말음 ‘ㅎ’로 남게 된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논의이지만 다음 (16a-e)의 중세 문헌에서 조금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6)(a) 너도 쏘 이 곧ᄃᆞ다(능엄 2, 23)

(b) 아랫세 하ᄃᆞᆫ 煩惱 | 만ᄃᆞ고(석보 6, 35)

(c) 道에 여희디 아니ᄃᆞ니(법화 2, 40)

(d) 비록 올ᄃᆞ야도 올타 아니ᄃᆞ야(내훈 3, 34)

18 이기갑(1981)에 따르면 ‘ㅎ야’형이 후대에 ‘ᄃᆞ고’형으로 교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대국어의 예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갖는다.

19 이광호(1985)에서는 ‘ᄃᆞ다’의 기능적 부담량 때문에 현대국어에까지 통사적 화석화로 남아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부방언의 화자들이 ‘하ᄃᆞ’를 기저로 ‘ᄃᆞ’를 어간으로 재구조화한 것이 특이하다고 하였다.

20 이현희(1985:7)에서는 ‘파랗다, 빨갳다’ 등의 어두 음절이 장음화되면 같은 모음이 연속되는 ‘파아랗다, 빨아갳다’ 등으로 실현되나 ‘하얗다’에서는 ‘하아얗다’가 아닌 ‘하이얗다’로 실현되는 것으로 볼 때 원래 ‘ᄃᆞ야ᄃᆞ다’에서 나온 형태라고 하였다. 여기서 ‘ᄃᆞ야ᄃᆞ다’의 ‘ᄃᆞ’ 모음은 하강적 삼중모음이라고 하면서 ‘ᄃᆞ야ᄃᆞ다’가 ‘하야ᄃᆞ다’로도 기록되면서 더 큰 세력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c) 그 德이 상네 조하야(월석 14, 51)

위 (16a-c)는 후기 중세국어에 ‘곤ㅎ-, 만ㅎ-, 아니ㅎ-, 조ㅎ-’의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형태는 현대에 이르러 ‘같다, 많다, 앓다, 좋다’의 어간으로 통합된다. 현대국어의 ‘많-, 앓-’ 등에서 음절말 자음군인 ‘ㅎ’은 중세국어의 ‘ㅎ-’에서 기원했음을 알 수 있다. 현대국어에는 위의 여러 예에서 알 수 있듯이 ‘ㅎ-’가 재구조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과도기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의미 기능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형태적 변화에 그치고 파생적 생산적 기능까지 얻게되면 이것은 융합형의 탄생에 이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예는 융합의 논의에 있어서도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며 특히 현대국어에서는 이런 재구조화 현상이 융합형 어미의 관별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중세국어의 ‘ㅎ-’는 음운론적으로는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면서 실현되는데, 보조용언으로서 ‘ㅎ-’는 형식적인 기능만을 하기 때문에 기능 부담량(Functional load)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 ‘ㅎ-’는 국어사적으로 ‘-’의 탈락을 경험하며 ‘-아/어’와 결합했을 때는 ‘하어’로 실현된다. 그리고 ‘ㅎ’는 후행음절의 어두자음을 유기음화하거나 선행음절의 말자음으로 재구조화된다.²¹ 현대국어에는 ‘ㅎ-’의 재구조화형인 ‘해-’가 남아 있으며,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보조용언 ‘ㅎ-’는 근대 이후의 융합 형성과 연관되는 음운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 고대 및 중세의 인용구문을 통해 근대국어의 융합 형성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간접 인용구문에서 ‘ㅎ-’의 기능을 분석하고 역사적 변화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융합형에 대한 분명한 자질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근대국어의 융합형 어미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ii. ‘ㅎ-’의 기능 부담성

근대국어의 융합형은 중세 및 고대의 과도기적 형태에 비해 보다 분명한 의미 기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어미는 자립성을 가진 다른 성분에 결합되어 선행 성분과의 통사론적 기능을 나타내거나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융합형 어미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새로운 의미 기능을 얻게 된다. 이런 구성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 사용하던 ‘-다 ㅎ-’ 구문에서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융합을 겪으면서 화자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새로운 의미 기능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근대국어의 융합형은 형태적, 통사적인 변화를 통해 원형과의 의미 차이를 가짐으로써 원형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해진다. 바꿔 말하면, 화자가 명제에 대해 주관적 믿음을 강하게 가지면서 발화시 화자의 판단이 개입되어 새로운 융합형 어미로 실현되는 것이다.

본고는 한국어 융합형 어미의 의미 기능과 분포를 기준으로 종결어미와 연결어미로 구분하여 살펴기로 한다. 이번 장에서는 근대문헌에 나타나는 예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먼저 ‘-다 ㅎ니

21 이광호(1985)에서는 접미사 ‘-하다’의 음운현상이 접미사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는 보편적 규칙이 아니라 이 접미사 ‘-하다’에만 국한된 小數規則(minor rule)이라 하였다. 또한 NP를 목적으로 취하는 본동사 ‘하다’와 NP를 단지 동사화시키는 접미사 ‘-하다’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다, -다 흐오, -다 흐네, -다 흐다' 등 중세국어에서와는 달리 '-답니다, -다오, -다니, -단다'의 형태로 실현된다. 이것은 근대국어 융합형 어미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현상이며 이들은 융합형 종결어미로 분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세국어에 '-다 흐니, -다 흐고, -다 흐면서'로 실현되던 어미가 근대국어에는 '-다니, -다고, -다면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융합형 연결어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단다'와 '-다니'의 어미들은 모두 중세국어의 인용 구성에서 보이는 잠재적인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흐-'의 축약과 어미의 통합을 통해 근대국어의 융합형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근대국어의 융합형 어미는 일반적으로 중세국어에서 내포된 성질을 바탕으로 많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현대국어에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근대국어의 융합형 어미인 '-답니다, -다오, -다네, -단다' 등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근대국어의 융합형 어미는 18세기 이후에 등장하여 20세기에 오면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17a-f)를 통해 근대국어에 나타난 '-다 흐-'의 원형과 (18a-c)에서 융합형 종결어미를 비교해보기로 한다.

(17)(a) 이 안건의 히결되기는 아열린드당의게 있다 흐엿다더라(대한매일 1910)

(b) 닐흠을 풍운이라 흐고 즈랄 녀성이라 흐다(장풍운전 1a)

(c) 今我郡守는 前無後無흐 冥官이라 한다더라(황성 2)

(d) 소비로 흐여곰 부인기 몬져 문안흐라 흐시더이다(장풍운전 17b)

(e) 일병 디경 밧씨 쫓츠내라 흐엿다더라(독립 1987)

(f) 該港(威海衛)에 適當흐 經營을 加코져흠이라 하얏더라(황성 95)

(18)(a) 자녀를 물론흐고 귀훈 마음은 다를 쟈가 업답니다(금강문 5)

(b) 즈근 아씨가 정말 순종흐는 줄 아시오,²² 우리 마음을 녹이느라고 그리훈다오(목단화 70)

(c) 이에, 그 쏫이 그러케 크고 繁華한 싸닥에 花中에 왕이란다

(最新初等小學 5, 275)

(17c)에서는 '-다 흐다'의 예를 비롯해 (17)의 다른 예에서는 '-다 흐-'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근대국어에 융합을 이루기 전 문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18a)와 (18b)에는 '-답니다, -다오'가, (17c)에서는 '-단다'가 실현되면서 융합형 어미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업답니다, 그리훈다오, 왕이란다' 등은 '-다 흠니다, -다 흐오, -다 흐다'를 원

22 '-오'는 하오체로 존대의 선어말어미 '-시-'와 함께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음에서 이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가) 今에 此地球의 圖를 보시오(심상 3, 35)

(나) 자 보시오(심상 1, 19)

(다) 영국 공스관에 와서 보시오(독립 20)

(라) 榮福이 食後에 다시 自鳴鐘 압히 나아가서 보더니 이어 보시오(심상 2, 25)

형으로 가지는 융합형 종결어미로 분류할 수 있다.²³ 다음으로 융합형 종결어미 ‘-다네’의 형성에 대한 것으로 논의를 이어보기로 하자. 근대문헌에는 원형의 ‘-다 흐니’와 융합을 이룬 어미 ‘-다니’²⁴ 두가지 양상을 모두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예는 다음 (19a-d)와 같다.

- (19)(a) 막을도 즐비하고 관샤도 웅장하다. 파마쥬에 속엿고 빅니는 왓다 흐니(일동 2, 49)
- (b) 나하고 여섯 비장 혼 방의셔 혼디 자고 쯔지 시온 스집이는 선방의 가잔다흐니
(일동 4, 181)
- (c) 남성원 삼노들도 이터로 어렵다니(일동 4, 201)
- (d) 김진스의 풍뉴하기 늑어도 쇠치 아니니 괴특다 흐신다니(일동 2, 98)

(19a-b)에서는 융합을 형성하기 이전의 ‘-다 흐니’가, (19c-d)에는 융합형 종결어미 ‘-다니’의 형태를 확인해볼 수 있다. 이들은 18세기까지 상호 교체되면서 환원적 성질을 지닌 융합형 어미로 실현되었다. (19a-d)의 예는 근대국어에 ‘-다네’가 융합형 어미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근거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살핀 것과 같이 융합형 종결어미는 ‘-다 흐-’의 원형에서 내포문과 모문의 어미가 ‘-다’인 경우에, ‘흐-’의 축약과 어미의 통합을 거쳐 문장에 나타나는 것이다.²⁵

이제 근대국어의 융합형 연결어미를 살펴보아야 할 차례이다. 본고에서는 ‘-다니, -다고, -다면서’ 등의 대표적인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융합형 종결어미의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니, -다고, -다면서’도 ‘-다 흐니, -다 흐고, -다 흐면서’의 원형으로부터 융합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본고는 융합형 연결어미의 일반적인 특징을 유추하기 위해 ‘-다고’ 유형을 보다 세분화해서 살펴볼 것이다.

다음 (20a-c)을 통해 ‘-다니’가 융합을 이루기 전 즉, ‘-다 흐니’의 모습을 띄고 있는 예와 융합을 겪은 이후의 형태 (21a-f)를 비교해보기로 하자.

- (20)(a) 각국을 구경하고 둥극까지 이르러 혼다 흐니(한성 17, 11)
- (b) 만일 이 스름이 등과 곳 흐면 일심을 섬기려 흐느이다 흐니(장풍운전 11b)
- (c) 슈히 찰혀 드리리이다 흐니 심이 허락하고 외당의 뉴흐니라(장풍운전 11a)

23 권재일(1986)이나 김홍범(1987)에서는 ‘-다’에 직접 ‘-다, -네, -오, -므니다, -므닛가’가 결합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안명철(1992:82-3)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말어미끼리 직접 결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뿐더러 간접인용절의 종결형에 왜 상대높임법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24 이영경(1992:53)에서는 ‘-니’가 17세기에는 동사와만 통합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현대국어에는 형용사와 계사와도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런 현상은 어미의 기원적 구성요소인 ‘-느-’가 성립 초기에 비해 의미, 기능의 약화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5 이 때 화자의 주관적 자질 [+의도]의 선어말어미 ‘-리-, -더-’ 등과 연결되어 나타나지는 않는다. 또한 ‘-오/우-’와도 결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선어말어미 ‘-오/우’가 15세기말까지 쓰이다가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 (d) 각딴에서 칠 일식 비주하라 하더니 곳쳐 쏘 문령하기를(독립 1987)
- (e) 어미 듯고 거르기 귀히 너겨 깃새라 호오니(첩해 8, 27b)

- (21)(a) 이에 무엇이랴나. 령감게서 너이시다니(대한민보 1909)
- (b) 음력 五월 十六일에 나가더니 종적이 망연하더니(독립 1899)
- (c) 그 남저지 협종하던 놈들도 다 도망 하고 허여져다니 구타여 가지 말고 (독립 1897)
- (d) 그 물종을 즉시 도로 퇴하고 맞지 아니하엿다니(독립 1987)
- (e) 로형은 년쇼하신 터에 유함을 단기신다니(목단화 100-1)
- (f) 다시 삼쇼를 시작하더니 아마 이번에는 복슈홀 방책을 별안간에 심각하엿나 보더라 (독립 1897)

위의 (20a-c)는 중세 및 근대국어에 ‘-다니’가 융합을 형성하기 전에 ‘-다 하니’의 원형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21a-b)는 ‘-나다니’, (21c-f)는 융합형 어미 ‘-다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예는 통시적으로 ‘하-’의 축약 이후 어미의 통합을 겪으면서 20세기초의 문헌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다음으로 ‘-다고’의 융합 형성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선행 논의에서는 주로 ‘-다 하-’에서 ‘하-’의 축약으로 형성되었다고 보는 견해와 ‘-다고 하고’에서 ‘-고 하-’가 탈락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있다. 본고는 ‘-고’의 등장 시기와 의미 부담량을 고려하여 전자의 견해를 수용하기로 한다. 기원적으로 ‘하-’가 탈락하지 않은 상태 즉, ‘-다 하고’에서 인용표지 ‘-고’가 수의적으로 첨가되었다고 보는 입장을 지지한다.²⁶ 이제 본격적으로 근대국어의 융합형 연결어미 ‘-다고’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고’는 16세기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하여 18세기 이후가 되면 빈번하게 실현되는 융합형 어미로, 다음 (22a-f)에서 그 기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 (22)(a) 나는 卽今 그 구멍에 들어가서 제기를 가지고 나올 벗을 請하야 왔다 하고 말하며 ((심상 2, 2a)
- (b) 상등병 일명과 헌병 보조원 스명으로 더브러 접전하엿다 하고(대한매일 1908)
- (c) 각국 사름이 모힌 중에서 심판을 형‘흠이 지당하다 하고(대한매일 1910)
- (d) 필연 도적의게 죽도다 하고 마음을 강잉하여 부남으로 가(장풍운전 4a)
- (e) 그사람의 일흠을 쫓아 아메리가라 하고 그 대륙을 서반아에서 차지하엿더니(독립 1896)
- (f) 음식 가지수를 손고바 해며 내라 하고 보챌다(연간 77)

26 인용표지가 생략된 구조는 16세기 문헌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이런 예들은 원형으로 회복 가능한 융합형 어미라고 할 수 있다.

(가) 월 스무날 후부터 말미 달나시니(청주간찰 13)

(나) 느려온 후에 괴별 몰라 일향 분별하더니 온다니 오나를 유무 보고 그저 업시 반갑고(청주 간찰 166)

(22a-f)의 예들은 융합형 연결어미 ‘-다고’의 원형 ‘-다 ㅎ고’를 보여주고 있다. (22a-d)의 예는 ‘-다 ㅎ-’를, (22e-f)는 ‘-라 ㅎ-’의 모습으로 실현된 근대국어의 예이다. 근대 후기에 이르면 이런 유형들은 다음에서 알 수 있듯이 ‘-다고’, ‘-라고’와 같은 융합형 어미를 형성하게 된다.

이제 ‘-다 ㅎ-’가 실현된 위의 (22a-f)와 다음 (23a-g)의 실례를 대조하면서 융합형 어미의 실현 양상을 이해하기로 한다.

- (23)(a) 일본 사림의 거류하는 싸에 숨어 잇다고(독립 1987)
- (b) 경상부교구비중에서 스천환을 쓰겟다고 탁지부로 조회했었다더라(독립 1910)
- (c) 흥비장두긋거워 달푸다고 에라흐니(일동 2, 89)
- (d) 몇가지 일이 결정되었다고 추측하는 자도 잇다더라(독립 1910)
- (e) 싸히 두텁다고 므이 밭지 말올거시(청구영언 222)
- (f) 닌 충성과 의가 홀노 늑다고 일커르니(關聖帝君明聖經諺解 23b)
- (g) 부르는 디로 곳 오라고(독립 1908)

(23)(23)은 융합형 연결어미 ‘-다고’의 전형적인 예들로 18, 19세기의 문헌에 주로 실현되고 있다. ‘-다고’는 기원적으로 ‘-다 ㅎ고’에서 ‘ㅎ-’의 축약과 인접 어미들 사이에서 통합을 경험하면서 형성된 융합형 어미이다.²⁷ (23)은 주로 개화기 자료에서 추출한 예이며, 융합을 이루기 전 ‘-다 ㅎ-’의 구조를 나타내는 (22)와 달리 융합형 어미 ‘-라고’와 ‘-다고’의 형태를 보여 준다. 19세기 후반이나 20세기에는 (23)과 같은 유형이 빈번히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주로 신문이나 일간지 등예의 보고체 형식으로 쓰인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무래도 신문류에는 시나 소설 등 문학작품에서보다 간접 인용문을 비교적 자주 사용하므로²⁸ 융합형 어미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근대국어의 융합형 어미 ‘-다면서’에 대해 재고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중세국어에서 ‘ㅎ면’은 근대후기에 와서야 후치사가 결합한 ‘ㅎ며서’로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래서 근대국어의 문헌에는 ‘-다 ㅎ면서’의 예를 직접 찾아볼 수 없고 ‘-다 ㅎ며, -다 ㅎ며서’의 예를 통해 융합 이전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²⁹ 융합 이전의 ‘-다 ㅎ며’는 ‘ㅎ-’의 축약을 통해 근대 후

27 이기갑(1987:24)에서는 15세기 이후 ‘ㅎ-’의 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씨끝의 첫소리	15세기	16세기	18세기
모음(반모음)	ㅎ	ㅎ	ㅎ-ㄹ
비음	ㅎ	ㅎ-ㄹ	ㅎ-ㄹ
파열음	ㅎ-ㅎ	ㅎ-ㅎ-ㄹ	ㅎ-ㄹ

28 김상대(1977)에서는 근대문학 초기 작품에서 ‘ㅎ고’가 나오지만 직접 인용할 때는 ‘라고’를 사용한다고 보았다.

29 이것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근대국어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간소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기문(1972:216)에 의하면 근대어의 부동사어미는 중세와 비교해 볼 때 간소화의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많은 어미들이 소멸되었을 뿐 아니라 부동사어미와 후치사, 첨사의 결합 관계는 간소화되었다는 것이다.

기에 오면 ‘-다면서’의 융합형 연결어미로 실현된다.

다음 (24a-c)와 (25a-f)의 두 예를 대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4)(a) 스므차사 흐리며(蒙山法語 10)

(b) 수머 살며서 어버시를 효양흐더니(번역소학 8, 2)

(c) 너희 일 익드라 흐며서 솟 흐 스리 다 소래라(雇工歌 雜歌 50)

(25)(a) 대황데페하씨 진상홀 물품이 잇다 흐며 방황흐다가(대한매일 1910)

(b) 속리산인이라 흐며 성명은 도출치 아니흐고(대한매일 1910)

(c) 의병이 일병과 접전흐다가 삼명이 피해흐었다 흐며(대한매일 1908)

(d) 내 죽은 후면 너의 부워 히를 맛느리로다 흐며 근심흐더니(장풍운전 5b)

(e) 우리 죄 사함을 얻기 위흐야 왓느이다 흐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니(경향 보감 1910)

(f) 나라해 전흐야 느려오는 도를 업시한다 흐며 성교 전흐는 사를 디덕흐야 맞서고

(경향 보감 1910)

중세국어에 다양하게 나타나던 부동사어미와 선어말어미, 후치사, 첨사의 결합이 줄어들면서 많은 어미가 소멸되었다. 그 중에서 근대국어까지 남아 있는 형태로 ‘-며서’가 있는데, 후대에 오면 주제첨사 ‘-니’와 결합하여 현대국어에는 ‘-면서’로 실현된다. 우선 (24a)는 선어말어미 ‘-리-’와 결합한 예이며, (24b)와 (24c)는 후치사 ‘-서’와 결합한 ‘-며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25)는 근대국어에 나타난 ‘-다 흐며’의 예인데, 융합형 어미 ‘-다고’와 마찬가지로 주로 신문류에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개화기 문헌을 중심으로 융합형 연결어미 ‘-다니, -다고, -다면서’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iii. 인용표지

한편 근대국어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인용표지 ‘-고’의 등장을 지적할 수 있는데, 아무리 이 형태가 기능 부담량이 적어서 수의적인 실현 양상을 보인다고 해도 융합의 형성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고의 근대국어의 융합 형성에 중요한 특징으로 인용표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런 인용표지 ‘-고’는 언제부터 등장하였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근대국어의 어미 결합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지만 그 시기와 정도의 문제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쟁점이 된다. 물론 간접인용구문이 사용됨에 따라 융합형 어미는 빈번하게 실현될 수 있었겠지만, 인용표지의 등장으로 인해 인용구문의 통사적 결합 순서와 의미 기능은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음은 사실이다. 그래서 본고는 지금부터 융합형 어미의 형성 과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인용표지 ‘-고’의 등장 배경과 그 실현양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근대의 여러 문헌 중에서 ‘-고’가 처음 나타난 문헌은 18세기의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이다. 그러면 ‘-고’의 출현은 일단 18세기 무렵으로

추정할 수 있겠는데, 엄밀한 의미의 하나의 인용표지로 자리잡은 것은 19세기에 와서일 것이다.
다음 (26a-c)의 예들을 검토하면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26)(a) 비방의 도로드리 눈감고 누엇더니 대마도 갓갑다고 샤궁이 니르거늘(일동 103)
- (b) 이런 스름을 俗談에 눈뜬 소경이라고 일은하 호오(심상 5a)
- (c) 울산슈와 니의숙이 왓노라고 전갈호디 몸 알파(일동 59)

위 (26a-c)는 18세기 후반 비언해문에 나타나는 융합형 어미 ‘-다고’이다. 이런 예들은 19세기 독립신문(獨立新聞), 황성신문(皇城新聞)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보고체 형식이면서 선행 명제의 사실을 인지하는 글에서는 자주 나타난다.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고’의 등장 시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27a-b)와 (28a-c)의 예를 비교해보자.

- (27)(a) 음식 가지수를 손고바 해며 내라 호고 보챌다(언간 77)
- (b) 사오나온 이리어든 적다 호고 호디 말며 어딘 이리어든 적다 호고 아니 호디 말라
(번소 6, 15b)

- (28)(a) 서국장의 도장 어대 잇서. 이 쏷에 한아만 싹으라구(쵸야월 54)
- (b) 나는 불러 무엇하오. 무엇이 긴하다구(미인의 자태 59)
- (c) 그리로 와서 기다리다가 갓치 도망을 호즈구(쵸야월 124)

(27a-b)는 17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다 호-’의 구성을, (2a-c)는 19세기와 20세기의 융합형 어미 ‘-다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다 호고’는 17세기 후반까지는 나타나지 않다가 (28a-c)에서 처럼 18세기 후반에 등장하면서 19세기 이후에는 융합 형성에 활발히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인용표지의 등장에 융합형 어미가 받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자. 종결어미의 유형에 따라 평서, 명령, 의문, 청유문으로 구분해서 ‘-고’의 실현이 수의적이나 필수적이나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먼저 평서형과 명령형에서의 실현 양상에 대해 다음 (29a-d)와 (30a-d)에서 각각 살펴보기로 하자.

- (29)(a) 보고가 한성부에 왓는디 본군 포상이 잇스면 조켓다고 호엿더라(독립 1896)
- (b) 李根命氏가 그 門人더러 말호디 닥집이 날마다 오는 손임은
外任일는지 內職일는지 아니 식히리라고 한다더라(황성 1)
- (c) 쏘한 짐이 들으니 근일에 외국사름의게 죽은 자도 잇다 호니(독립 1896)
- (d) 우리가 들으니 갈닌 히주 반딧불 막음이 잇다 히서 (독립1896)

- (30)(a) 도적의게 몇 비히 스실 호라고 호엿다더라(독립 1896)

- (b) 一介月 以內에 反軍을 討滅하라고 하얏다더라(황성 8)
- (c) 該道中으로 十一人을 別選하야 報하라 하얏다는(황성 8)
- (d) 街路上에 時가 지나거든 罷하라 하얏다니(황성 1)

(29a-c)는 평서형 어미에서 (30a-d)는 명령형 어미에서 각각 ‘-다고 하-’와 ‘-다 하-’가 모두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9c-d)에서와 (30c-d)에서는 인용의 ‘-고’가 수의적으로(optional) 생략되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서 살펴볼 의문형 어미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다음 (31a-c)를 통해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31)(a) 엇더케 하여야 관찰스와 원 노릇을 잘 하겠느냐고 하기에(독립 1896)
- (b) 선심 하나를 만나 못기를 조선이 엇더케 하여야 조켓느냐고 훈즉(독립 1896)
- (c) 扶安 長水 兩郡守의 엇지하야 免官되야느냐고 하얏다니(황성 2)

위의 (31a-c)에서 알 수 있듯이 ‘-냐’의 종결어미가 사용된 의문형에는 모두 ‘-고’가 실현되고 있다. 명령형이나 평서형에서 수의적인 실현 양상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이런 차이는 의문문의 의미 기능인 확인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청유형에서의 인용표지의 실현양상은 다음 (32a-b)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 (32)(a) 沈相勳氏를 가보고 層層이 請하야 裁判을 말조고 한즉(황성 4)
- (b) 규바를 독립국으로 되접하자 하는 말이(독립 1896)

(32a-b)를 통해 인용표지는 의문문에서와 달리 수의적으로 실현됨을 알 수 있다. (32b)는 외국의 사건을 보고하는 것이 주내용인데, ‘-고’가 생략되어 (32a)와는 다른 형태로 실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명령, 평서형에서와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한편 근대국어에서 인용표지는 조사와의 통합에 있어 조금 다른 양상을 띠는데 이것은 현대국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들, -덜, -만, -도, -는’³⁰ 등의 조사가 인용표지와 함께 나타날 때 ‘-고’는 생략되지 않고 필수적으로(obligatory) 실현된다.

다음 (33a-c)를 통해 인용표지가 조사와의 통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 (33)(a) 日前會議에 參政尹容勳氏의 反對가 되어 아직 案되었다고들 하더라(황성 1)
- (b) 법 직히는 복성의 종이라고만 하얏지(독립 1896)
- (c) 警察官吏드른 조세이 審査하는 거시 조케다고들 하더라(황성 9)

30 김창섭(1981:53)에서는 ‘기구들이 간편하다’처럼 중복해서 표현할 수 있을 때는 복사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들’의 분포와 의미에 대해서는 고영근(1972a), 임흥빈(1978)을 참조. ‘-는, -도, -만, -야’ 등은 채완(1977) 참조.

(33a-c)에서는 다른 부사어가 삽입되면 인용표지 ‘-고’는 생략을 저지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조사와 통합하는 인용표지가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고’의 등장 시기 및 어미 유형별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고’는 일반적으로 평서형, 청유형, 명령형 어미에서는 수의적으로 실현되는 반면에, 의문형 어미에서는 필수적(obligatory)으로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융합의 형성에 있어서는 의문형에서 소극적인 양상을 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용표지가 조사와 통합되어 나타난 구문에 있어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근대국어의 융합형 어미의 특징에 대해 되짚어 보았다. 융합형 종결어미는 ‘-다 ㅎ-’의 원형에서 ‘ㅎ-’의 축약을 경험하면서 어미 ‘-다’와 인접 어미의 통합을 통해 형성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답니다, -다오, -다네, -단다’의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융합형 연결어미 ‘-다니, -다고, -다면서’ 유형에 대해 고찰하였다. 융합의 형성은 근대 후기에 인용표지가 등장하면서 조금은 소극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인용표지 ‘-고’는 의미 부담량이 적은 어미로서 수의적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융합의 형성을 저지하지는 못하였다.

IV 나오며

이상 인용구문을 중심으로 융합형의 새로운 의미 기능과 인용 표지에 대해 재고해보았다. 고대국어에는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존재하다가 중세에 이르러 화합을 이루면서 하나의 완전히 굳어진 형태가 형성된다. 그러나 근대에 오면 다른 형태가 그 자리를 대치하면서 현대국어에는 동일한 화합형태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 한편 융합형은 근대와 현대에도 빈번히 실현될 뿐 아니라 형태 의미적 변화를 통해 원형과 다른 새로운 형태구조로 재탄생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특히 간접 인용구문을 중심으로 한 구문에서 융합형의 형성과정에 주목하였다. 먼저 ‘ㅎ-’의 기능을 분석하고 역사적 변화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융합형에 대한 분명한 자질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융합형 어미는 현대국어에도 상당량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융합형 종결어미는 ‘-다 ㅎ-’의 원형에서 ‘ㅎ-’의 축약을 경험하면서 어미 ‘-다’와 인접 어미의 통합을 통해 형성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답니다, -다오, -다네, -단다’와 ‘-다니, -다고, -다면서’의 실현양상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화합과 다른 융합형만의 개념 정립을 위해 의미 기능 면에 주목하여 고찰하였다. 융합과 달리 화합은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만나서 음절이 축약되는 것을 말한다. 음운론적인 형태 변화와 더불어 역사적으로 문법 기능이 변화한 것을 화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융합은 형태의 의미적 변화를 겪어 하나의 형태소로 굳어진 언어 형식을 말하는데, 더불어 형태의 재구조화를 통해 의미 기능이 변하는 결과물을 말한다. 본론에서는 실례를 중심으로 후기 중세국어에서 근대에 이르러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향후 동일한 종결어미와 연결어미에 대한 문증 및 상호 대조 또한 근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보다 정밀한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참고문헌

- 장인선(1975), 「15세기 국어의 인용 구조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고영근(1978), 「형태소의 분석 한계」, 『언어학』 3, 29-35쪽.
- 고영근(1981), 『중세국어의 사상과 서법』, 탑출판사.
- 고영근(1989), 『국어 형태론 연구』, 서울대출판부.
- 김영옥(1995), 「문법형태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문법형태에 대한 역사적 연구, 박이정출판사).
- 김영옥(1999), 「구역인왕경 구결의 사상과 서법 선어말어미」, 『구결연구』 5, 구결학회, 147-164쪽.
- 김영기(1987), 「On h-deletion in Korean」, 『국어학』 3.
- 김형철(1991), 「개화기 문헌의 인용문 표현 연구」, 『들머서제극박사 환갑기념논문집』, 계명대 출판부(개화기 국어연구, 경남대출판부, 1997)
- 남기심(1973), 「국어의 완형보문법 연구」, 『국어학』 7, 탑출판사(국어의 완형보문법, 태학사)
- 서정수(1975), 『동사 ‘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 송석중(1976), 「On an Abbreviation Phenomenon in Korean」, 『언어』 1-2, 70-88쪽.
- 송철의(1993), 「준말에 대한 형태-음운론적 연구」, 『동양학』 23, 25-49쪽.
- 안명철(1990), 「국어의 융합 현상」, 『국어국문학』 103, 121-137쪽.
- 안명철(1991), 「인용구문 융합의 특성」, 『국어학의 인식과 새로운 전개(김완진 회갑논총)』, 민음사.
- 안병희(1987), 「어학편」, 『한국학기초자료선집:고대편』, 정문연.
-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 유현경(2001), 「어미 ‘-다고’에 대한 연구」, 『국어학회 발표논문집』, 국어학회.
- 이광호(1985), 「동사어간 ‘하-’의 음운현상」, 『어문학논총』 4, 국민대어문학연구소, 99-116쪽.
- 이기문(1972), 『국어사 개설』, 탑출판사.
- 이기문·김진우·이상억(1984), 『국어음운론』, 학연사.
- 이상복(1983), 「국어 인용구문 연구」, 『말』 1, 연세대.
- 이승재(1992), 「융합의 형태분석과 형태의 화석」, 『주시경학보』 10.
- 이영경(1992), 「17세기 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08.
- 이지양(1993), 「국어의 융합현상과 융합형식」, 서울대 박사논문(국어의 융합현상, 태학사).
- 이필영(1993), 「현대국어의 인용구문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탑출판사).
- 이현희(1986), 「중세국어 용언 어간말 ‘ㅎ-’의 성격에 대하여」,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 장경희(1977), 「17세기 국어 종결어미 연구」, 『서울대논총』 16.
- 장경희(1998), 「중세국어 종결어미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정 광(1986), 「‘하-’동사 활용의 음운론적 해석」, 『국어학 신연구』, 탑출판사.
- 정길남(1996), 「개화기 교과서의 종결어미 연구」, 『한국초등교육』 36, 서울교육대학, 93-112쪽.
- 정재영(1996), 「의존명사 ‘ㄷ’의 문법화」, 『국어학총서』 23, 태학사.
- 황선엽(1995), 「15세기 국어 ‘-으니’의 용법과 그 기원」, 『국어연구』 135.
- Bloomfield Leonard(1967), *Language*, Gerge Allen & Unwin Ltd. London.
- Bybee, Joan L.(1985), *Morpholog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이성하·구현정 역, 『형태론』, 한국문화사, 2000).
- Jespersen, Otto(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The Norton Library, New York.
- Jespersen, Otto(1954), *Language*, Gerge Allen & Unwin Ltd., London(허웅 역, 『언어학』, 샘문화사, 1986).
- Martinet, A.(1961), *Elément de Linguistique générale*, Librairie, Armand Colin(김방한 역, 『언어학원론』, 일조각).
- Matthews, P. H.(1974), *Morphology: An Instruction to the Theory of Word-structure*,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

- Nida, Eugene A.(1978), *Morphology: The descriptive Analysis of Word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 Scalise, Sergio(1984), *Generative Morphology*, Foris, Dordrecht(전상범 역, 『생성형태론』, 한신문화사).
- Spencer, Andrew(1991), *Morphological Theory*,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